

## 유럽연합의 REACH(신화학물질관리)에 따른 한국기업의 대응방안

김정훈, 이중희<sup>1,\*</sup>, 우인성<sup>1</sup>  
바텍안전E&C; <sup>1</sup>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 
(bartec@sec-korea.co.kr\*)

유럽연합은 오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신화학물질관리(REACH)법에 따라, 유럽연합 내에서 제조 및 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(Phase in substance)에 대한 등록, 평가 및 승인을 유럽연합 내의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의무화하고 있다. 이 제도의 진행에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물리화학적 성질, 유해성 및 환경독성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한 승인이 동반된다. 이는 관련 기업들에게 경제적, 시간적 비용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시장에서의 전략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. 이는 직접적인 REACH제도의 이행이 불가능한 국내 화학산업계에게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. 중소기업에게는 이 제도에의 인식과 이해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.

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REACH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고, 추후 작성하여야만 하는 기술서류(Technical Document), 독성연구보고서(Chemical Safety Report) 등에 대한 준비 및 수행해야 하는 실험에 대한 검토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. 이 지원방안에는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전등록과 2009년 시작되는 물질정보교환포럼(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)에서의 협상방안에 대한 전략적인 수행계획도 포함된다. 또한, REACH 제도 관련 업무수행을 시간별 진행업무 분석 및 비용분석을 본 연구의 결과로써 제시하고자 한다.